

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이슈브리프

'21년 글로벌창업생태계보고서를 통해 본

투자트렌드 변화

그린플레이션(Greenflation)의 배경과 동향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

주간 KDB리포트 Contents

이슈브리프

‘21년 글로벌창업생태계보고서를 통해 본 투자트렌드 변화	1
그린플레이션(Greenflation)의 배경과 동향	5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	8
--------------------	---

'21년 글로벌창업생태계보고서를 통해 본 투자트렌드 변화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최현희 (choikoex@kdb.co.kr)

- ◆ 미국의 스타트업 정책자문회사 스타트업지놈(Startup Genome)은 지난 9월 22일 '글로벌창업생태계보고서(GSER*) 2021'을 발표
- ◆ 보고서에 따르면, 최근 글로벌 창업생태계에서 투자금액 증가, 유니콘 급증과 유니콘 배출도시의 확대, 북미 외 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, Deep Tech 분야의 빠른 성장 등의 변화가 나타남

* GSER(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)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도시별 창업생태계 경쟁력을 평가하여 순위를 발표하는 보고서로, 전세계 스타트업 임원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됨. '12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으며, 금년도 조사 대상은 100개국 275개 도시임

□ 최근 글로벌 창업생태계의 변화로 투자금액 증가, 유니콘 증가, 북미 외 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, Deep Tech 분야의 빠른 성장 등을 들 수 있음

-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창업생태계의 변화를 분석하면서, '21년을 성장과 생산성 증가가 두드러졌던 한해로 평가함

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창업생태계의 주요 변화

구분	내용
벤처투자 증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글로벌 벤처투자 규모 - '20년 상반기 U\$1,480억달러 → '21년 상반기 U\$2,880억달러 (95% ↑)
유니콘 증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유니콘 개수 : '20.10월~'21.6월 동안 43% 증가 • 유니콘 배출지역이 글로벌 허브도시 중심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
북미 외 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국에 대한 투자비중 감소 : '04년 84% → '20년 51% • 아시아, 라틴아메리카,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 증가
Deep Tech 분야의 빠른 성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업의 디지털화가 코로나19로 가속화 • Deep Tech 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
정부지원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스타트업 창업 및 폐업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규제완화 조치 •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거액의 국가예산 배정, 벤처펀드 결성

자료 : Startup Genome('21.9), "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21", KDB미래전략연구소 재구성

□ 코로나19로 급감했던 투자는 이전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회복

- 글로벌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직후 규모와 건수 모두 급감하였으나*, 최근에는 회복수준을 넘어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
 - * '20.1분기 글로벌 벤처투자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7% 감소, 투자 건수는 5% 감소(자료 : Crunchbase)
 - Crunchbase에 따르면, '21년 상반기 글로벌 벤처투자 규모는 U\$2,880억달러로 '20년 상반기 대비 95%, '20년 하반기 대비 61% 증가하였으며, 이 수치는 반기 투자규모로 사상 최대규모임*
 - * 글로벌 벤처투자규모 : '20.상반기 U\$1,480억달러 → '20.하반기 U\$1,790억달러 → '21.상반기 U\$2,880억달러

□ 코로나19 이후 유니콘 수가 급증하고, 유니콘 배출도시가 확대

- 유니콘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창업생태계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,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유니콘 수가 급증하고*, 유니콘 배출지역이 글로벌 허브도시 중심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됨**
 - * '21.8월 현재 전세계 유니콘 수는 800개를 넘어섰으며(자료 : CB Insight), 유니콘 수는 '20.10월에서 '21.6월 동안 43% 증가함(자료 : Crunchbase)
 - ** 유니콘을 1개 이상 배출한 도시 수 : '19년 140개 → '20년 155개 → '21년 170개(자료 : Dealroom)
 - 유니콘 중 미국회사의 비중이 여전히 지배적이지만, '21년 상반기 동안 중국, 캐나다, 독일, 이스라엘, 영국, 프랑스에서 7-10개의 유니콘이 배출됨

□ 과거 북미지역에 편중되었던 투자가 아시아, 라틴아메리카,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

- 글로벌 창업생태계의 펀딩규모와 회수가치(Exit)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, 미국에 대한 투자비중은 점차 감소하고*,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임
 - * 글로벌 벤처투자금액 중 미국회사에 대한 투자 비중 : '04년 84% → '20년 51%(자료 : NVCA)
 - 라틴아메리카의 경우, '21년 상반기 투자규모(U\$60억달러)가 전년도 연간투자금액 대비 51% 증가(자료 : LAVCA)
 - 아프리카의 경우, '21년 중 U\$28억달러가 투자되었고, '25년까지 U\$100억달러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(자료 : AfricArena)
 - 중국의 경우, '21.1월~5월 동안 U\$370억달러가 투자되었고(자료 : GlobalData), 인도에는 '21.상반기 U\$121억달러가 투자됨*(자료 : Venture Intelligence)
 - * 아시아 지역의 경우 중국과 인도에 대한 투자가 전체 투자금액의 약 2/3을 차지함

- 이러한 현상은 스타트업 창업과 투자유치에 있어 물리적 제약에 따른 한계가 줄어들고*, 각국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지원정책이 이어지며 지역간 창업 생태계의 편차가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

* 코로나19로 원격근무 환경 등 디지털 인프라 도입이 가속화되며 물리적인 제약의 한계가 급감

□ Deep Tech* 분야가 빠르게 성장 중

* 보고서는 AI & 빅데이터, 블록체인, 첨단제조 & 로봇틱스, Agtech & New Food를 Deep Tech 섹터로 분류함

- Deep Tech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, Deep Tech 분야는 '15년 이후 이루어진 Tech 투자금액의 30%를 차지함
- AI & 빅데이터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투자(시리즈A 딜)는 지난 5년간 98% 증가했으며, 글로벌 스타트업 가운데 AI & 빅데이터 분야의 비중이 27%를 차지
- Agtech & New Food, 블록체인, 첨단제조 & 로봇틱스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투자는 지난 5년간 각각 128%, 121%, 109% 증가함

Deep Tech 분야별 투자현황

	과거 5년간 시리즈A 딜 증가율	과거 5년간 Exit 가치 증가율	글로벌 스타트업 중 차지하는 비중
Agtech & New Food	128%	△14%	2%
블록체인	121%	52%	10%
첨단제조 & 로봇틱스	109%	61%	10%
AI & 빅데이터	98%	93%	27%

자료 : Startup Genome('21.9), "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21"

- 코로나19는 섹터별 투자동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, 게임, 에듀테크(EduTech) 섹터의 경우 과거 투자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초기투자가 증가하였고, 성숙단계로 분류되었던 핀테크 섹터도 초기투자가 증가함
- 이러한 변화는 재택근무 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

□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기조가 더욱 강화

-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취약해진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의 스타트업 지원 기조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분석함
- 다수의 국가에서 창업 및 폐업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규제완화 계획을 밝혔고*, 거액의 예산배정과 벤처펀드 결성이 이루어짐
- * 영국 정부는 하루 만에 창업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규제완화 계획을 밝혔고, 스페인은 규제완화 등 50가지 조치를 포함한 향후 10년 계획을 밝혔음

□ 글로벌 창업생태계의 변화는 국내 스타트업에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

- 코로나19로 촉발된 변화로 인해 스타트업 운영과 투자유치에 있어 물리적 제약의 한계가 줄어들면서 투자지역이 확대되고, 창업생태계의 지역간 편차가 감소하는 현상은 국내 스타트업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
- 글로벌 창업생태계의 변화와 국내 창업생태계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스타트업 지원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

<참고> '21년 글로벌 창업생태계 순위

- 글로벌 창업생태계 Top 5는 전년과 비교하여 순위 변동이 없었으며, 아시아 지역은 Top 30 내에 9개 도시*가 포함되었고, 서울은 전년 대비 4단계 상승한 16위를 차지

* 베이징(4위), 상하이(8위), 도쿄(9위), 서울(16위), 싱가포르(17위), 선전(19위), 벵갈루루(23위), 시드니(24위), 항저우(25위)

- 서울의 창업생태계 가치(Ecosystem Value)는 54조원으로 평가

'21년 글로벌 30대 창업생태계

순위	도시	순위	도시	순위	도시
1	실리콘밸리 (-)	11	워싱턴DC (-)	21	샌디에고 (-)
2	뉴욕 (-)	12	파리 (↑1)	22	베를린 (↓6)
3	런던 (-)	13	암스테르담 (↓1)	23	벵갈루루 (↑3)
4	베이징 (-)	14	토론토-워털루 (↑4)	24	시드니 (↑3)
5	보스톤 (-)	15	시카고 (↓1)	25	항저우 (↑3)
6	LA (-)	16	서울 (↑4)	26	애틀랜타 (↓3)
7	텔아비브 (↓1)	17	스톡홀름 (↓7)	27	덴버 (↓3)
8	상하이 (-)		싱가포르 (-)	28	필라델피아 (신규진입)
9	도쿄 (↑6)	19	선전 (↓3)	29	밴쿠버 (↓4)
10	시애틀 (↓1)	20	오스틴 (↓1)	30	솔트레이크 (신규진입)

자료 : Startup Genome('21.9), "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21"
괄호 안은 전년 대비 순위 변동

그린플레이션(Greenflation)의 배경과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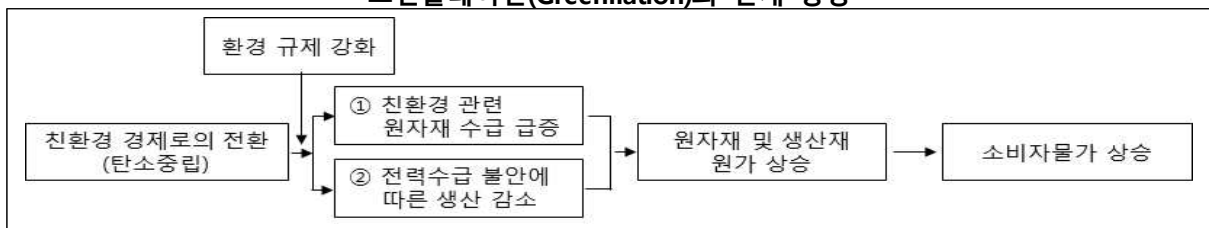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강명구 (mgk101@kdb.co.kr)

- ◆ 그린플레이션(Greenflation)은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각종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지칭
- ◆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친환경 수요 급증, 친환경 규제 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물가로 이연
- ◆ 그린플레이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 확충과 더불어 탄소중립 과도기간 중 전력공급원간 보완성도 함께 조절해갈 필요

□ 그린플레이션(Greenflation)은 친환경을 상징하는 '그린(Green)'과 물가상승을 뜻하는 '인플레이션(Inflation)'의 합성어로, 탄소중립 등 친환경정책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지칭

- 전 지구적 환경보전이 목적인 친환경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는 데 반해, 각종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공급병목으로 관련 물가가 상승
 - 원유·석탄 등 화석연료 기반의 전통적 발전 체제로부터 태양광·풍력 등 친환경 기반으로 에너지 체제가 전환하면서 ①친환경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는 한편, ②전력 수급 불안에 따른 생산 감소로 생산재 전반에 원가상승 압박과 비용전가가 발생

그린플레이션(Greenflation)의 전개 양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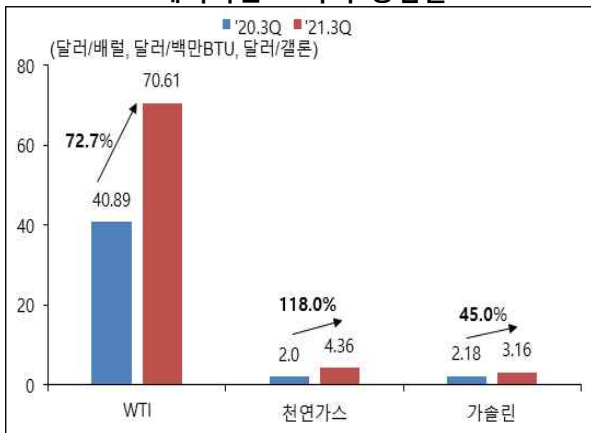


□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세로 야기된 수급 불균형으로 그린플레이션이 현실화

-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 심화로 최근 급진전을 보인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전기차 등 관련 친환경 원자재 수요 증가로 해당 원자재 공급가격이 급등*
 - * '21.3분기 광물자원 가격 변동률(%,'20.3분기 대비) : 리튬 395.4, 마그네슘 290.5, 망간 102.6
 - (중국) 탈탄소화 환경규제와 이에 따른 전력부족 사태로 공장가동률이 하락하여 글로벌 원자재 공급 급감*
 - * 세계 생산량의 82%를 차지하는 마그네슘 생산량('21.1~9월)이 50%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원자재 공급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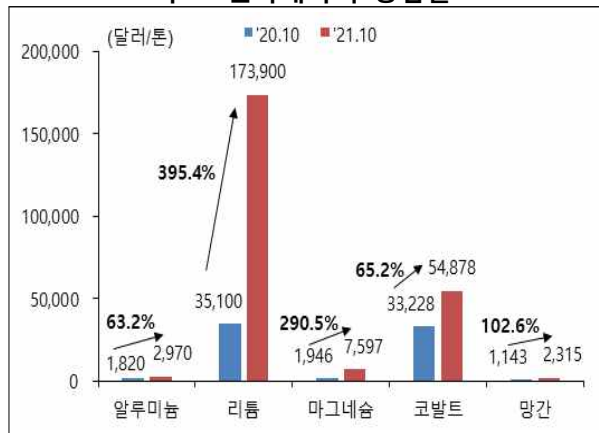
- (유럽) 차체 경량화 자재인 알루미늄, 마그네슘 등 다수 원재료의 수급 불균형으로 후방 제조업 생산 감소
- (미국) 중국 전력난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희토류, 리튬 등 친환경 원자재 공급부족이 산업생산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미 정부는 수급처 다양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 추진

에너지연료 가격 증감률



주 : BTU는 1파운드의 물을 1⁰F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
 자료 : 미국 에너지정보청(EIA)

주요 원자재가격 증감률



주 : 리튬은 위안화/톤
 자료 : 한국자원정보서비스(KOMIS)

- 태양광·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원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화석연료 발전소의 가동률 제고로 발전연료 단가가 급등
 - 대표적 사례로 유럽의 경우, 풍력 약화로 미흡해진 발전량 대체를 위해 석탄 발전량을 확대*함으로써 석탄 및 전력생산 단가에 영향
 - * '21.1~5월 유럽의 석탄발전 공급량이 전년동기 대비 22.2% 증가
 - 천연가스의 경우처럼 주요 공급원인 러시아가 한때 천연가스 공급량 확대를 거부*하는 등 정치·경제적 이슈도 영향
 - * '21.10월 이후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확대 결정으로 갈등요인 해소 국면
- 이의 여파로 '21.3분기 주요 에너지자원 가격은 전년 동분기 대비로 천연가스 118.0%, 원유 72.7%, 가솔린 45.0% 상승*
 - * 천연가스는 Henry Hub Spot, 원유는 WTI, 가솔린은 미국내 세금 포함 소매가 기준
- 원자재 공급이나 제품생산 차질은 물론 해상운송 등 물류 측면에서도 병목이 발생하며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를 추가 자극
 - '21.10월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국은 31년 만에, EU는 '94.3월 이후, 중국은 '20.10월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*
 - * '21.10월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(% , 전년동기대비) : 미국 6.2, EU 4.1, 중국 1.5

□ **글로벌 장기과제인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린플레이션 동반은 불가피하므로 각국은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**

○ 글로벌 친환경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그린플레이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 확충과 더불어 과도기적인 전력공급원간 보완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

○ 한국도 친환경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 현재 과도한 중국 의존도*를 완화하기 위한 수급처 다변화, 가능한 범위내 자국 자체생산망 유지·보완, 주요 원자재 비축전략 수립 등이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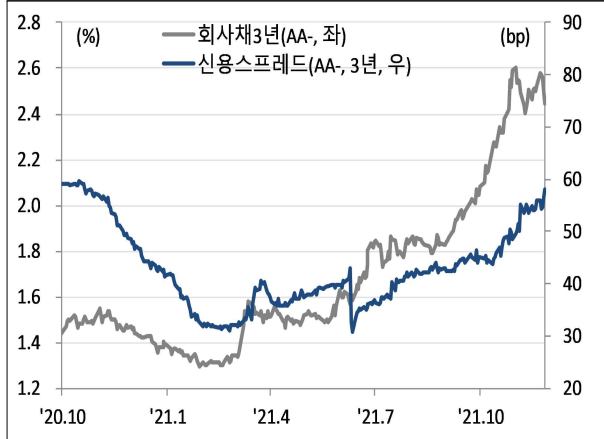
* 친환경 원자재 對중국 의존도(% , 1~9월 수입 기준) : 마그네슘잉곳 100, 망간제품 99, 알루미늄 케이블 97.4, 산화텅스텐 94.7, 수산화리튬 83.5, 수산화코발트 80.6 등(무역협회)

- 친환경 원자재 주요 생산국*과 정부간 전략적 협력으로 공급안정화 체제를 갖출 필요

* 리튬은 볼리비아, 망간·흑연은 남아공, 브라질 등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금 리 국고채3년 1.863% (10.3bp ↓), 신용스프레드 58bp (2.1bp ↑)



환 율 원/달러 1,193.3원 (8원 ↑), 엔/달러 113.15엔 (0.84엔 ↓)



주 가 코스피 2,936.44pt (1.16% ↓), 코스닥지수 1005.89pt (3.46% ↓)



* ()는 전주대비 상승 ↑, 하락 ↓

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제954호

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인터넷 rd.kdb.co.kr, kdb.co.kr
문의 787.7818

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.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, 원고의 무단전재, 복제,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.